

전남도 “AI·구제역 막아라”

청정지역 유지 동물방역 내년 575억 투입 ‘역대 최대’

전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 등을 위해 내년 575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263억원·도비 92억원·시군비 175억원·자부담 45억원으로, 지난해 367억 원보다 200억원 가량이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고병원성 AI 비발생 원년 달성을 위해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10억원, 가금농가 사육 제한 10억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6억원 등을 투입한다.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5억원),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1억원), 통제초소 운영(45억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25억원), 친환경 축사 소독(7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백신약품비 100% 지

원 93억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9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기술비 4억원,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에 51억원을 마련했다.

경제적 피해가 많은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과 소 설사병 조기 진단 약품,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구입 등에 모두 5억원을 투입한다.

질병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규

모 한우농가 진료비와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지원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AI나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방역비(5억원)도 처음으로 확보했다.

전남도는 또 최근 강진 만덕간척지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소독과 예방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정상용 부적격” 광주시의회 강력 반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녀 병역기피 의혹·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 논란

정상용(69)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위장전입과 자녀 병역기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가는 기관과 단체마다 문을 닫았는데, 이 정도면 ‘부도 전문가’ 아니냐”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5년부터 6년간 사장으로 근무한 호주 호라이즌프롭장이 법정관리 후 부도 처리됐고, 지난해 5월부터 근무한 모 유한회사는 재직 4개월만에 폐업신고 후 부도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경 분야 경력을 밝혀달라는 시의회의 사전 요구에 “없음”으로 답변해 논란을 빚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광주시 환경 관련 기본 현황마저도 대답하지 못해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광주의 하루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정 후보자는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법적 기준을 묻는 조석호(민주·북구4) 의원의 질의에도 정 후보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가 서툴다”고 답했다.

이어 박미정(민주·동구2)의 “음식물 자원화와 관련해 전국 우수시설들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자기소개를 통해 밝혔는데 다른 지역에 광주와 유사한 시설들이 몇 개 정도 있느냐”는 질의에도 정 후보자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자녀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박미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지난해 1월 5일 병적제적, 즉 국적을 상실했는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 시점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병역 회피 의혹이 짙다”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선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가정경제 사정으로 아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병역을 회피해 버린 과실에 대해 지책을 달게 받고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주소지를 광주에 두고 있는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특위 신수정 위원장은 “전문성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아 후보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면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기에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광주시로 보내는 안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울촌산단 기업 주소 3개 불편 해소 지자체가 나서야”

김기태 도의원 주장

울촌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이 겹쳐서 기업활동에 제약(광주일보 11월16일자 5면)을 받고 있어 관련 지자체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994년부터 낙후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울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여수시 울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총 910만8000㎡(약276만평)를 메워 울촌1산단을 조성했다.

울촌1산단은 여수시 236만4000㎡, 순천시 387만4000㎡, 광양시 287만㎡에 걸쳐 조성돼 현재 1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해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놓고 지난 2003년 순천시와 광양시 간 소송분쟁이 있었다.

실제 울촌산단 내 행정구분기준이 필지별로 되지 않고,매립 전 해상경계로 이루어지다보니 세제제정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걸쳐 주소를 두고 있고 현대제철 등 10개 기업은 2개 시 이상에 걸쳐 주소를 두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지자체 간 관할구역 조정의 실패로 행정낭비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지방세, 건축허가, 치안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는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소송이나 법적 다툼 이전에 광양만권 3개시의 협력과 상생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간 관할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불편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와 관할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 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일자리 토론한마당’ 내일 DJ센터서 열린다

지역 일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2018 광주 일자리 토론한마당’이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토론 한마당은 시민,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의 참

여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신하고 의미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200인 시민원탁토론 ▲광주 청년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토론회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사업’ 되살리기 시민들이 나서

시민단체·대학생 재협상 촉구 완성차 공장 유치 결의대회도

광주시민단체, 대학생들이 완성차 공장 유치 성사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며 광주, 현대자동차, 지역노동계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서명서도 작성해 현대차에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의 협상 재개에 나섰다지만, 지난 5일 잠정합의안이 이사회를 거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광주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재상정해야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연말 안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을 중심으로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례가 될 현대차와의 ‘완성차 공장 유치를 기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를 10일 오후 빛고을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송갑석 국회

의원, 김동찬 시의회의장, 이정재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회장, 정병진 광주전남총학생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250여개 광주 주요 시민사회단체 회원·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대차와의 완성차 공장 유치 성공을 촉구하고, 범시민차원의 지원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소원을 충분히 이해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완성차 공장 유치가 협상 성사 직전에 무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이 협상단을 직접 이끌면서 협상주체들 간 신뢰를 회복하고 끝까지 유치를 기원하는 범시민 결의회를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보건복지 대상

기관 표창·포상금 받아

광주시는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합동 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마련’ 분야 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을, 주요 활동, 관련 예산·인력 지원, 노력도 등 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추진 등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등이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과 포상금 25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완성차공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광주형일자리 반드시 성공시키자’,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청년들의 희망’이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여행은 무안공항에서 시작하세요!

▶▶▶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스타박스 아메리카노 1대 교환권 제공(성인기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2018. 12. 3(월) - 12. 23(일)

하나투어 여행박람회를 검색하세요 🔍

대만/동남아		일본/중국		
<p>대만</p> <p>698,000원~</p> <p>대만/시우펀/야류 3일,4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월,목,금,토 3박 5일 (12월 19일~21일까지)</p> <p>매일 운항 3박 4일 (12월 20일부터)</p> <p>#타이베이,불가리아</p>	<p>방콕</p> <p>685,000원~</p> <p>방콕/파타야 5일,6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일요일 4박 6일</p> <p># 태국 및 3#운룩 #다이나믹여행지</p>	<p>코타키나발루</p> <p>799,000원~</p> <p>코타 5일,6일 시내 준특급</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목요일 3박 5일 일요일 4박 6일 #12월 23일부터 운항</p> <p>#아일랜드호텔 #반딧불투어</p>	<p>기타큐슈</p> <p>590,000원~</p> <p>기타큐슈/유후인/벵투 4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p> <p>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매일 운항 2박 4일</p> <p>#지옥온천 #캐슬시티</p>	<p>오사카</p> <p>970,000원~</p> <p>오사카/교토/나라 4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있음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일,월,목 3박 4일(12월 21일까지)</p> <p>매일 운항 (12월 22일부터)</p> <p>#일본관광일정 #다양한 특색 #USJ #1일자유</p>
<p>세부</p> <p>564,000원~</p> <p>세부5일,솔레아리조트</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화,수,금,토 3박 5일 #12월 21일부터 운항</p> <p>#해양+관광 즐기기 #필리핀의 보물</p>	<p>캄보디아</p> <p>949,000원~</p> <p>하투어 단독 전세기 캄보디아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2월2일, 2월9일 3박 5일 2월6일, 2월13일 3박 4일</p> <p>#천년의 도시 #세계유네스코유산</p>	<p>다낭</p> <p>799,000원~</p> <p>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12월 20일까지)</p> <p>매일 운항 3박 4일 (12월 21일부터)</p> <p>#4성급호텔 #투명관광 #후이안전통가</p>	<p>상해</p> <p>329,000원~</p> <p>상해/항주/주자강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상해#항주#양양의 베니스 #주자강 빛놀이</p>	<p>상해/장가계</p> <p>1,090,000원~</p> <p>상해/장가계(원가) 4일,5일</p> <p>현지저녁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p> <p>#천하제일명승 #일식아이스빙</p>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이용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증 수 있으며 불포함될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여행상품 가격] 여행상품 가격은 유류할증료와 항공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유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택관광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원할! ■ 여행 유의 ■ 여행 자제 ■ 절수 권고 ■ 여행 금지